

외국인 투수들 강속구 ‘씹씹’... 타자들 방망이는 ‘화끈’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연습경기에서 삼성에 9 대 1 대승 앤더슨·메디나 150km 넘나들고 김규성·김도영·변우혁 맹타



‘우여곡절’ 끝에 KIA 타이거즈의 오키나와 연습경기가 시작됐다. 손 앤더슨과 아도니스 메디나가 첫 연습경기에서부터 150km 강속구를 뿌리면서 ‘강속구 듀오’의 모습을 보여줬고, 내야수 김규성은 그라운드를 돌았다.

KIA가 1일 일본 오키나와 온나손 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연습경기에서 9회말 터진 김규성의 스피릿을 묶어 9-1 대승을 거뒀다.

지난 19일 미국 애리조나 투슨에서 열린 WBC 대표팀과의 연습경기 이후 오랜만에 전개된 실전에서 타자들은 패조의 타격감을 보이면서 장단 15안타를 만들었다.

7번 타자 겸 유격수로 나선 김규성은 홈런과 2루타로 탈타히트를 기록했고, 1번 타자 겸 3루수로 출장한 김도영은 3안타 활약을 펼쳤다. ‘이적생’ 변우혁도 2개의 2루타로 힘을 과시했다.

마운드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의 피칭에 눈길이 쏠렸다.

이날 앤더슨이 가장 먼저 출격해 2이닝 동안 19개의 공으로 6명의 타자를 상대했다.

첫 타자 김현준을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한 앤더슨은 구자욱은 3루수 파울 플라이로 돌려세웠다. 이원석은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2회도 같았다. 4구 승부로 첫 타자 오재일의 방망이를 헛뜰게 하면서 삼진을 잡아냈고, 강민호는 좌익수 플라이로 요리했다. 강한울은 3구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첫 연습경기에서 3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다.

직구 최고 구속도 153km를 찍었다. 10개의 직구

를 던진 앤더슨의 이날 평균 구속은 149km. 앤더슨은 슬라이더(5개·136~140km), 커브(2개·124~131km), 체인지업(2개·136~139km)도 구사했다.

3회에는 메디나가 마운드에 올랐다. 첫 타자 김동엽을 3루수 파울 플라이로 처리한 메디나는 김태훈을 2루 땅볼로 잡고 투아웃을 채웠다.

메디나가 3루수 김도영의 포구 실책으로 이재현을 내보낸 뒤 김현준에게 우전 안타를 맞으면서 2사 1·2루에 몰렸다. 이어진 구자욱과의 승부에서 볼 3개를 연달아 던지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9구가 지 가는 승부 끝에 방망이를 끌어내면서 삼진으로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메디나는 4회 선두타자 이원석에게 1루수 뒤로 떨어지는 안타는 허용했지만 오재일과 강민호를 연달아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냈다. 하지만 2사 2루에서 강한울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 실점이 기록됐다. 이어진 김동엽과의 승부에서 포수 한승택이 강한울의 도루를 저지하면서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이 끝났다.

메디나의 첫 연습경기 성적은 2이닝 3피안타 1탈삼진 1실점, 직구(2개) 최고구속은 150km.

투심(17개·142~147km) 위주로 피칭한 메디나는 커터(7개·135~139km), 체인지업(7개·134~137km), 슬라이더(3개·126~128km)를 섞어 던졌다.

한편 KIA는 7회 승부를 뒤집었다. 1사에서 김규성이 우측 2루타로 출루한 뒤 고종욱의 내야안타로 1사 1·3루가 됐다. 홍중표의 타구가 좌익수 앞에 떨어지면서 3루에 있던 김규성이 홈에 들어왔고, 김도영의 좌전 적시타가 나오면서 KIA가 3-1로 승부를 뒤집었다.

KIA는 8회 신범수의 적시타로 1점을 더한 뒤 9



KIA 새 외국인 투수 듀오 앤더슨과 메디나가 1일 오키나와에서 열린 삼성과의 연습경기에서 첫 실전에 나서 강속구를 선보였다. 불펜 피칭하는 앤더슨(왼쪽)과 메디나.

회 대거 5득점에 성공했다.

선두타자 김도영의 안타를 시작으로 김석환, 주효상의 연속 안타가 나왔다. 변우혁의 2루타와 김규성의 3점포까지 터지면서 KIA는 오키나와 첫 연

습경기를 9-1 승리로 장식했다.

앞서 KIA는 날씨 영향으로 애리조나에서 예정됐던 NC 다이노스와의 연습경기 두 경기를 치르지 못했고, ‘LA 불시작’ 여파로 지난 28일 잡혔던 한

화 이글스와의 연습경기도 소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KIA는 캠프 두 번째 연습경기에서 뜨거운 타격을 선보이면서 실전 감각 우려를 털어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메시, FIFA 2022 올해의 선수

최우수 여자 선수는 푸테야스

아르헨티나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이끈 ‘축구 영웅’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우뚝 섰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2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즈’ 시상식에서 남자 최우수 선수 부문 수상자로 메시를 호명했다.

1991년 올해의 선수상을 제정한 FIFA는 2010년부터 프랑스 축구 전문지 프랑스풋볼이 선정하는 발롱도르와 통합해 ‘FIFA 발롱도르’라는 이름으로 시상하다 2016년부터 다시 발롱도르와 분리해 지금의 이름으로 따로 시상식을 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막을 내린 카타르 월드컵에서 7골 3도움을 기록하며 아르헨티나에 36년 만의 우승을 안기고 최우수선수상 격인 골든볼까지 품은 메시는 최종 경쟁자였던 두 프랑스 공격수를 제쳤다.

메시의 클럽 팀 동료인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는 결승에서 아르헨티나에 승부차기 끝에 져 월드컵 2연패는 이루지 못했지만 8골로 득점왕에 등극하며 최우수 후보 자리에 올랐다.

카림 벤제마 역시 2021~2022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득점 1위에 오르며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을 이끌고, 지난해 10월 발롱도르를 수상하는 등 화

려한 한 해를 보냈지만 메시의 아성을 넘지 못했다.

이 상은 FIFA 회원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미디어, 팬 투표 결과 등을 반영해 수상자를 정하는데, 총합 52점을 획득한 메시는 음바페(44점), 벤제마(34점)를 제쳤다.

메시의 수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폴란드, FC바르셀로나)가 연속으로 FIFA 올해의 남자선수상을 받았다.

최우수 여자 선수상은 FC바르셀로나의 선봉장 알렉시아 푸테야스(스페인)에게 돌아갔다.

잉글랜드의 유럽여자축구선수권대회(여자 유로 2022) 우승을 이끈 베스 미드(아스널 WFC)와 미국의 알렉스 모건(샌디에이고 웨이브)을 제친 푸테야스는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2년 연속 수상 영예를 누렸다.

올해의 남녀팀 감독상에는 각각 월드컵과 여자 유로 우승을 이끈 리오넬 스킳로니 아르헨티나 감독과 사리나 비그만 잉글랜드 감독이 나란히 수상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에스틴 빌라)까지 남자 최우수 골키퍼로 뽑히며 월드컵 챔피언의 위용을 뽐냈다.

잉글랜드의 골문을 지킨 메리 어프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여자 최우수 골키퍼로 선정됐다.

올해의 골인 푸슈카시상은 폴란드의 ‘절단 장에



리오넬 메시

인 축구 리그’에서 뛰는 마르틴 올렉시(바르타 포즈난)가 지난해 11월 환상적인 오른발 시저스킴으로 넣은 골이 뽑혔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의 발디아(왼쪽)가 1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FC안양과의 2023시즌 K리그2 개막전에서 안양 최성범과 공을 다투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후반 3분 못 지키고... ‘용의 눈물’

전남 드래곤즈 K리그2 개막전 홈구장에서 안양에 0-1 패배

전남드래곤즈가 마지막 3분을 지키지 못하고 패배로 2023시즌을 열었다.

전남은 1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FC 안양과의 2023 K리그2 개막전에서 0-1로 졌다.

후반 중반 이후 거세게 안양 골대를 겨냥했던 전남의 슈팅이 잇달아 발발된 뒤 후반 추가 시간에 아쉬운 실점을 남기면서 안방에서 쓴 패배를 안았다.

전반 12분 임찬율이 슈팅을 날리면서 개막전 포문을 열었다. 전반 17분에는 발디비아의 슈팅이 나왔지만 골대를 빗나갔다.

이후 안양이 먼저 전열을 정비했다. 전반 30분 이후형 감독이 이재용과 최성범을 대신해 조성준과 안용우를 투입했다.

하지만 양팀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0-0으로 전반전을 마감했다.

전남 이장관 감독은 교체 카드로 후반전 분위기를 바꿨다.

이 감독은 임찬율과 박성걸을 대신해 추상훈과 플라나를 그라운드에 올렸다.

그리고 후반 3분 플라나가 1대 1찬스를 맞기도 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후 팽팽한 힘겨투기가 전개됐고, 후반 중반 전남이 공격 주

도권을 잡았다. 후반 23분 플라나의 왼발 슈팅이 빗나가면서 아쉬움을 삼킨 전남, 1분 뒤에는 추상훈이 오른발로 안양 골대를 두드렸지만 공은 골키퍼 박성수 정면으로 향했다.

2분 뒤 다시 한번 추상훈이 움직였다. 왼쪽에서 공을 몰고 올라간 추상훈이 직접 슈팅까지 날렸지만 골키퍼를 뚫지 못했다.

전남이 이후에도 안양 진영에서 공세를 벌였지만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후반 29분에는 안양 조나탄의 터닝 슈팅이 나오면서 전남 골키퍼 김다솔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예정된 90분의 시간이 모두 지난 뒤 5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

추가 시간에 돌입하자마자 추상훈이 골키퍼를 마주하고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그리고 후반 48분 전남이 코너킴 상황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안양 안드리고가 크로스를 올렸고, 문전에 떨어진 공을 잡은 조나탄이 오른발 슈팅을 날리면서 전남 골대를 뚫었다.

전남은 경기 종료 직전에도 상대의 슈팅이 골대 맞고 나가면서 추가 실점 위기는 넘겼지만, 만회골을 넣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결국 결정력·뒤통심 싸움에서 밀린 전남은 안방에서 펼쳐진 2023시즌 개막전에서 0-1패를 남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아사니·티모·김경민 K리그1 1R 베스트 11

광주FC의 새 외국인 선수 아사니와 티모가 K리그 데뷔전에서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하하원큐 K리그1 2023’ 1라운드 베스트 11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수원삼성을 상대로 2023시즌 개막전이자 K리그1 복귀전을 치른 광주에서는 아사니(FW), 티모(DF) 두 외국인 선수와 함께 ‘철벽 수문장’ 김경민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원 원정에서 20분 교체 투입된 아사니는 0-0으로 맞선 후반 43분 왼발로 골을 장식하면서 1-0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선발로 풀타임을 소화한 티모는 상대 공격을 봉쇄하면서 무실점에 기여했다.

김경민은 상대의 유효슈팅 8개를 모두 막아내는 ‘호수비쇼’를 펼치면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1라운드 MVP는 포항스틸러스의 이호재에게

돌아갔다.

이호재는 26일 포항스틸러스에서 열린 대구FC와의 개막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3-2 역전승을 이끌었다. 정재희의 골까지 더해 3골을 터트리며 승리를 챙긴 포항은 1라운드 베스트팀이 됐다.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울산현대와 전북현대의 경기는 1라운드 베스트 매치가 됐다.

이날 경기에서 울산은 전반 10분 송민규에게 2023시즌 K리그1 첫 골을 허용했지만, 전반 43분 기록된 임원상의 동점골에 이어 후반 19분 터진 루빅손의 골로 2-1 역전승을 장식했다.

‘우승후보’인 두 팀은 90분 내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올 시즌에도 뜨거운 우승경쟁을 예고했다. 또 이날 관중석에는 2만 8039명이 입장하면서



왼쪽부터 김경민·아사니·티모.

코로나19 이후 K리그 한 경기 최다 관중수를 기록했다.

◇2023 K리그1 1라운드 베스트 11

▲MVP: 이호재(포항) ▲FW: 아사니(광주), 레안드로(대전), 이호재(포항) ▲MF: 임상협(서울), 오베르단(포항), 주세중(대전), 김태훈(울산) ▲DF: 티모(광주), 김주성(서울), 안톤(대전) ▲GK: 김경민(광주) ▲베스트 팀: 포항 ▲베스트 매치: 울산(2) vs (1)전북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